

중병에 고통받는 인쇄업계를 치유할 명의를 없는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세업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영세업체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2004년도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업계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혁신을 단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업계 지도자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 또한 인쇄업에 종사한지도 어언 25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현재에 이르러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저희 업계에서는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선거로 인쇄 골목마다 후보자들이 쏟아놓은 공약으로 술렁이고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줄서기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거나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인쇄는 아주 중요한 문화 사업입니다.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하신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일개 민족, 그리고 일개 국가에 있어서 인쇄문화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쇄문화가 앞장서야만 다른 나라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쇄기계는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원 부자재 역시 상당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인쇄업계의 현 주소입니다. 정치는 혼탁하고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극복하려 생산 시설을 중국,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쇄업계도 많은 업체가 문을 닫거나 부도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들 합니다. 저 또한 때로는 일찍 인쇄업계를 떠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까지 인쇄업을 이어온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전의 일이었습니다. 잘 아는 거래선에서 전단지 제작한다기에 평소의 견적을 냈더니 거래처 관계자가 깜짝 놀라더군요. 타 업체와 비교하여 월등히 가격이 높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컬러 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비교하여 저희 회사의 견적이 16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해당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것은 당연지사였지요.

위와 같은 일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쇄업체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한 두 번 겪어 본 일일 겁니다.

금번 서울조합 이사장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자 여러분! 그리

고 인쇄인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인쇄업계가 발전하려면 수요에 비해 과대하게 설립된 컬러명함, 컬러전단 업체들이 생산 품목을 다른 분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업체가 경쟁을 벌이다 보니, 서로간의 경쟁이 인쇄업계 모두를 어려움에 몰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유도해 업계 발전에 공헌한 바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서로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과도한 경쟁을 펼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 인쇄업계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쇄업계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군가 과감히 나서 주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 앞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민족의 후예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세업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영세업체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2004년도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업계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혁신을 단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정진섭 · 유진인쇄사 대표〉